푸른자연의 고장 경산(慶山)

강 욱 자유기고가

경상북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慶山)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풍요로운 문화의 고장이다.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와 영천시, 그리고 아래로는 청도군과 맞붙어 있다. 대구와 영천의 경계인 경산 북쪽은 팔공산의 지맥으로 산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시의 중앙은 금호강이 흐르고 있어 강 연안에 형성된 평야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넓은 구릉지대로 비옥한 농토를 안고 있는 경산시는 농업과 공업이 동시에 발달한 도농(都農) 복합형 도시로 1,400여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경산은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대구선 철도, 국도, 산업도로 등 사통발달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한 영남대, 대구대 등 13개의 대학이 위치해 국내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교육·연구도시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경산은 옛 삼한시대에 압독국의 고도(古都)로서 유서 깊은 역사가 깃들어 있다. 또한 많은 문화유산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3성현(三聖賢)'이 태어난 고장이다. 즉 신라의 고승으로서 대문장가인 원효성사, 역시 신라의 대학자로 이두를 만들어 유교의 경전을 해석한 설총, 「삼국유사」를 찬술한 것으로 유명한 일연선사가 경산 땅에서 태어났다.

와촌면 강학리 팔공산 자락에는 불굴사가 있다. 이 절은 크게 꾸미지 않은 자연스런 모습으로 찾는 이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불굴사는 신라 때 창건한 절로 조선시대에는 은해사를 말사로 거느릴 만큼 큰 절 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500여동의 건물에 12암자를 거느렸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땅의 대부분의 사찰이 그러하듯 불굴사도 조선 중기 이후 많은 유생들의 간섭과 방해로 절이 쇠퇴해져 갔다.

설화에 따르면 불굴사 스님들이 유생들의 횡포로 곤혹을 치르던 어느날 점잖은 한 손님이 찾아왔다. 스님들은 그에게 유생들의 횡포를 막는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절 뒤쪽에 있는 거북의 눈을 빼면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스님들은 크게 기뻐하며 당장 거북의 눈을 빼 버렸다. 그러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며 큰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나 절이 묻혀 버렸다고 한다.

현재 불굴사 보호각 안에 있는 약사여래입상은 산사태로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발굴한 것이다. 이 부처는 효험이 있는 부처로 알려져 이곳 사람들이 미륵님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경내의 삼층석탑은 보물 제429호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 7.43m에 이르는 이 석탑은 이중 기단 위에 사각 삼층석탑으로 세워진 전형적인 신라 석탑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팔공산은 대구와 군위, 영천, 경산을 경계하는 우리나라 명산 중의 하나이다. 이 산은 산체가 워낙 커서 골짜기마다 수많은 암자와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속칭 갓바위로 불리는 관봉석조여래좌상은 와촌면 대한리 팔공산 관봉 꼭대기에 경산을 지키듯이 바라보고 앉아 있다. 보물 제431호로 지정된 이 불상은 높이 6m의 화강석 1석으로 조각된 것인데, 머리 위에 1.8m의 평평한 자연석 하나를 갓 모양으로 쓰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좌불은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수제자인 의현대사가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선덕여왕 7년(638)에 조성하였다 한다. 이 좌불은 얼굴이 수려한데다 두 볼이 풍만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어 인자하기보다는 준엄한 모습이다. 갓바위에게 지성껏 빌면 한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영험 많은 부처로 알려져 있어, 전국에서 예불하러 온 사람들이 주야로 끊이지 않고 찾아들고 있다.

중요 무형 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된 '한 장군 놀이'는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일대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 행사는 부락제의 성격도 있으나 '강릉 단오제'나 '은산 별신굿'과 흡사한 민속놀이다.

자인면 일대의 주민들은 한 장군이란 인물이 실제 인물이었거나 아니었거나 상관없이 지금도 그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지니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한 장군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뭄이나 역병이 돈다고 믿어 해마다 단오가 되면 제사와 함께 여원무라는 춤을 추는 한 장군 놀이를 벌여왔다.

석류꽃이 붉게 피고 앵두가 열리는 오월 단오날 전후에 이 행사는 3일 동안 펼쳐진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은 아낙네들이 자인 장터에 몰려들어 여원무를 추며 사당으로 향하는데, 청룡기, 백호기, 주작기, 현무기 같은 것이 사당에 서고 농기에 이어 높이가 3m에 무게가 45㎏이나 되는 여원 화관을 받쳐든 두 사람이 따른다. 행렬은 한 장군 사당에 도착할 때가지 풍악을 잡고 강강술래에서처럼 둥근 원을 지어 서로 뒤따르면서 도돌이 장단에 맞추어 계속해서 여원무를 춘다.

자인면 계정 숲 일원에서 매년 펼쳐지는 '자인단오 한 장군 놀이'는 일대의 주민들은 물론 다른 고장의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구경꾼이 몇만명에 이른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춤, 그네, 씨름 등 각종 민속놀이도 함께 펼쳐진다.

비옥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산 땅에서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옛날 사과하면 대구를 연상한 적이 있었다. 바로 그 유명했던 대구 사과의 주산지가 지금의 경산 땅이다. 경산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기후조건에서 연간 16,000여 톤씩 생산되는 경산 포도도 특산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포도주는 이 중에서 맥반석토양에서 재배하고 송이마다 일일이 종이로 싸서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고당도의 무공해 포도를 엄선해 재료로 사용한다.

자인지역은 예로부터 흑염소를 방목하여 기른 곳으로 유명하다. 이 고장에서는 육질이 좋은 염소고기가 많이 생산되었고 염소를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또 경산지역에서는 일찍이 쇠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조리법이 발달하여 왔다. 이곳의 별미 음식으로는 등심을 이용한 불고기와 갈비살 등이 유명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맛과 영양이 뛰어난 자인 한우고기를 맛보기 위해 자인을 찾고 있다. 그 밖에도 쇠꼬리탕, 육즙, 양즙, 도가니탕 등이 별미음식으로 손꼽힌다.